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7시
오전 (3부) 7시 10시
후 (4부) 2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에배 7시30분
수요일에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6월 1일 (제744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92-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홍 우 칼 렘

조급과 무리는 동색이다

‘조급’은 ‘참을성이 없이 매우 급하다’는 뜻이고, ‘무리’는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 조급과 무리는 동색(同色), 곧 하나이며,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죄를 범했다(삼상13).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유하다 유대로 내려가셨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다.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요11:15).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심사숙고하신 후에 움직이신 것이다. 성경은 조급한 자에 대해 ‘어리석다’(잠14:29), ‘궁핍함에 이른다’(잠21:5), ‘미련하다’(잠29:20)고 했고, ‘속히 부하고 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도 했다(잠28:20). 그러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마음, 곧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다(마5:41).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대학진학을 두고두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기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또한 무리하는 것도 최악이다. 무슨 일에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내 분량을 알고, 내 그릇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무리하게 힘을 쓴다던가, 돈을 쓴다던가, 무리한 일을 벌이다보면, 종국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죄를 짓고, 정도를 벗어나 편법을 쓰게 된다. 사도 바울 말이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조급한 마음, 무리하는 마음은 죄이니 버리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원 개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매주 각 노회별로 교단의 목회자들이 기도원을 찾아 개보수공사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공사가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도 거리불문, 시간불문으로 달려와 하나님의 성산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기도원 식구들은 물론 매주 내려와 수고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 그리고 교육전도사들, 이름도 빛도 없이 물질을 대며 먹거리 제공해주시는 분들, 이 모든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들로 인하여 우리 기도원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게 변모해가고 있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는 지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딪치다보면 뇌가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생겨나는 것이다. 뱃속에서부터 다 알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배우고 익히고 연구함으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해가는 것이다. 여기 와서 일한다는 생각보다 뭔가 하나라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피곤은 절로 떠나갈 것이고 오히려 새 힘이 임할 것이다. 늘 말하지만 게으른 자는 핑계를 찾으나 부지런한 자는 방법을 찾는다.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라 하지 않았는가? 일을 벌여놓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게을리 마무리 짓지 못하는 자가 어찌 목사요,

말겨진 일에 내 이름을 걸고 한다는 자 세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자.”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느끼게 된 것이 있다. 우리 교단의 건설노하우라는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는 점이다. 1997년의 기도원 개축공사, 2003년 기도원 호텔 신축공사, 2005년 인천교회 신축공사, 이런 대공사 외에도 여러 지교회들의 건축공사가 있었고, 우리는 그 때마다 전 교단의 역량을 모아 성공적인 공사를 진행해왔다. 그 경험의 축적이 우리 교단의 노하우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처럼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



기도원이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변모해가고 있다.

일을 시작하는데, 월요일에는 아침 기도회와 식사를 마친 후면 목사님께서 공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일의 가치를 강조하신다. 한 주간에 진행될 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기도원을 찾은 교역자들이나 일꾼들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일을 두려워하니 일의 노예가 되어 피곤하기만 한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소풍가는 학생의 심정으로 가슴이 편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대와 동경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일이 신나고 피곤이 나를 덮을 수 없다. 인생 최대의 무기는 바로 내 몸통이다. 두려워 말고 내 몸을 던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알게 되

그런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겠는가? 양이 목자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가오는 청소년수련회와 산상집회에 찾아올 양떼를 위해 목자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게 이 성산을 가꾸어 보자.”

그리고 목사님은 잠언 6장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 부과된 일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당부하셨다. “절대 무리하지는 말기 바란다. 조급해 서도 안 된다.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힘이 없어 보였다. 눈으로 보면서도 신기할 정도였다. 호텔 보수공사에 외주하청을 주변 수역을 호가하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하자 호텔 건축도 우리 교단의 힘으로 했는데, 보수공사에 못하겠나 하며 결기를 보이는 모습들에서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가 솟는 느낌이었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안하는 것이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 기대와 동경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만 갖는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일본집회

6월 2일(월) ~ 6일(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6:1~15)

하나님은 철저한 교육자시다

하나님은 교육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육을 교육하시길 원하시고,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통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찌니라”(신6:6-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言)에 대한 교육을 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지혜롭고 합당한지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온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잠17:27~28),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마5:37), “너희 말을 항상은 해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4:6),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딤후2:8),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3:2)...

저는 나름대로 말의 3대 원칙과 3대 불

예절, 예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말의 3대 원칙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할 것, 남의 말을 높여줄 것, 남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이것이 3대 원칙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게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1:19).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토론과 협상의 명수이자 경청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스탈린, 처칠 같은 최고 국가원수들과 협상을 할 때, 일단 침묵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

다고 합니다. 하도 듣기만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니
까 상대
방이 “이
제 내가 할 말
은 다 했으니 당신이
할 차례요!”라고 말할 정도였

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때 날카롭게 문제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협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한 이유도 어느 계층 어떤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녀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재미있을 때는 크게 웃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뭉클한 얘기에서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포옹을 했습니다. 말의 3대 원칙을 준수한 것입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면 일단 다 들어줍니다. 듣다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제가 할 일은 얘기가 끝났을 때 성경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의 위력이지요. 요즘에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예전에는 푸줏간에서 고기를 파는 사람을 조금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

니다. 그 시절 김선택이란 자가 푸줏간에서 고기를 팔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고기를 사러왔습니다. 그는 푸줏간에 들어서자마자 “아이, 개똥아. 고기 두 근만 줘.” 하며 명령하듯 했습니다. 개똥이라 불린 김선택은 고기를 잘라 종이에 말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때 다른 사람이 또 고기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김 서방, 고기 두 근 주시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선택은 “에” 하고는 고기를 잘라 종이에 말아주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흘끗 보니 같은 두 근인데 자기 것보다 양도 많고 육질도 훨씬 좋아보였습니다. “아, 개똥아. 왜 네 거랑 차이가 나는 거야? 똑같은 두 근인데 왜 이리 달라?” 하고 소

리를 지르자 김선택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다를 수밖에요. 그

건
개 똥이
가 준 것이
고, 이젠 김 서
방이 자른 거니까
요.”

왜 말을 잘해야 하는지 아셨습니까? 고기 두 근 차이가 별 것 아니지만, 말을 잘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비와 조식은 조조의 아들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조식은 조조의 둘째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많은 책을 읽고 말과 글이 빼어나 아버지인 조조의 사랑을 받았습

니다. 그래서 조조는 조식을 태자로 삼으려 했지만 많은 대신들의 반대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큰 아들인 조비는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썼습

니다. 어느 날 조조가 전쟁터로 나갈 때 두 아들이 전송을 하는데, 조식은 그 자리에서 조조의 공적을 기리는 시를 지어 못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

니다. 그것을 본 조조는 조비의 효성이 진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조조가 병으로 죽었을 때, 큰 아들인 조비가 왕이 되었습니다. 조비는 왕이 된 후에도 조식을 미워해서 낮은 작위로 강등시켰습

니다. 그런 다음 조식을 불러 ‘네가 글을 잘 짓는다고 늘 뽐기는데 그렇다면 일곱

말은 곧 예술이다 인생을 디자인하라

걸음을 걸을 동안 시를 하나 지어보아라. 그렇다면 죽음을 벗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식은 잠깐 궁리하더니 걸음을 때며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각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콩이 솥 안에서 우는구나. 본디 한 뿌리에서 자랐건만 왜 서로 들볶아야만 하는지.’

그 시를 듣고 조비는 가책을 느껴 조식을 죽이지 않고 도로 봉양지로 돌려보냈습

니다. 말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렸나니”(잠18:21).

여러분, 사회는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인간관계, 곧 연결고리가 바로 말입니다. 제가 이번엔 기도원 수도 파이프라인이 부식되어 뜯어보니 이 녹의 근원이 파이프의 연결고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음새에 노폐물이 들어가 녹이 생기고, 그 녹이 전체로 퍼진 것입니다. 그 이음새를 인간관계라 합진대, 말이 거칠고, 말이 경우가 없고, 말이 천박하면 그것이 결국 인간관계를 부식시키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 맑고 아름다우며 경우에 합당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는 곧 예술입니다. 예술작품에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듯 내 언어에 내 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둡고 더러웠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꿨다면 어떨까요? 말의 3대 원칙, 3대 불원칙을 실천해보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장담컨대 분명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관계에서, 교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모두가 여러분의 성숙한 인격에 박수를 보내며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중의 지혜 아닙니까? 할렘루아!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첫걸음



지난 5월 15일, 저는 운전도로연수를 시작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지 거의 25년 만에 핸들을 처음 잡아본 것입니다.

평생 나의 기사가 되어 주셨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3개월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고 난 뒤 저에게 나타난 첫 변화입니다. 지난 2012년 가을, 위암 진단을 받았던 남편이 결국 떠났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이초석 목사님의 전화에서 울려 나오는 기도하 찬송을 뒤로 하고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게 된 남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제 짧은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 지난 2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편안하다 하면 중에 찾아온 이 일로 인하여 저의 잠자던 영을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 덕분에 이제 저의 영혼은 더욱 주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새벽과 저녁 시간에 하루의 실업조를 드리는 마음

으로 두 시간 이상씩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니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순간순간 지난 생활이 떠올라 울컥하지만 꽃다발을 가지고 다가를 축복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날마다 다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시116:1-7).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내 손 잡아주심을 믿으며 그 첫걸음으로 이제 운전을 시작합니다. 저와 같은 형편과 처지의 일을 접한 형제자매여! 뒤의 것은 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남들이 가지 않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는 앞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날에 기쁨으로 만날 때, 먼저 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멋졌어!" 하며 꽃다발을 가지고 달려와 포옹할 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후회 없이 살아봅시다.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지 말고요. 저는 오늘도 운전연습을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꿈을 갖고, 먼 훗날 남편을 만났을 때 당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살롬!

이미경

lmkwdf@hotmail.com

지혜가 제일이라

어떤 상인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 가지고 있는 돈은 많은데 조금 일찍 도착한 터라 아직 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상인은 도시에는 도둑도 많은데 돈을 어떻게 보관할까 고민하다가 외진 곳에 그 돈을 묻었다. 그런데 다음날 그 곳에 가보니 돈이 없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분명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돈이 없어지다니... 상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나무 숲 사이로 어찌는 못 보았던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집 가까이 가보니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분명히 이 집 사람이 구멍을 통해 보고 지갑을 가져갔을 거라는 짐작이 갔다. 상인은 그 집으로 가서 주인을 만나 말했다.

"아무래도 저는 시골사람이고, 댁은 도시에 사니까 지혜로우실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요. 저는 이 도시로 물건을 사려고 지갑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지갑에는 은화 300개, 다른 지갑에는 은화 700개가 들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은화 300개 들은 지갑은 어찌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은화가 더 많이 들은 나머지 지갑도 땅에 묻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자 집 주인이 말했다. "사람을 어떻게 믿소? 나라면 은화 300개 들은 지갑처럼 땅에 묻어두겠소." 상인이 알겠다고, 고맙다고 집을 나왔다. 그러자 집 주인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자기가 파왔던 돈 지갑을 도로 가져다 물었다. 나중에 지갑 두 개를 함께 꺼낼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것을 멀리서 상인이 지켜보다가 자기의 지갑을 찾고 떠났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리라 (잠언 4:7).

예수중심편집실



::교단소식::

세상을 향해 복음의 떡을 던져라



호주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던 프랭크제너(1903~1973)에 대한 실제 내용이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그는 40년간이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도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에 스스로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그동안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며 낙심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 어

느 목사의 방문을 받고 자신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런던에 한 교회에서 주일에 배를 마칠 때였다. 어느 성도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간증자는 자신이 얼마 전 호주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백발의 노인이 건네준 전도지를 받고 고민 끝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했다. 그 간증 뒤 2주 좀 지나서 여기저기서 시드니 조지 거리의 노인인에 대한 간증이 계속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어느 교회에서 '재생명전도축제'를 앞두고 만든 영상물의 내용이다. 이 영상물은 인터넷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 동영상에서 '제너'의 전도에 따른 회심자가 14만 6천명에 달한다고 소개한다. 이 영상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저

래서 전도는 꼭 해야 하는구나.",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전도 안한 것이 부끄럽네." 등이었다. 심방을 마치고 들어가던 길이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와 전도를 하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들은 인천교회 중동교구 전도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사탕과 차를 대접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반응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천국이 있으며, 복음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기도를 해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나 같은 부족한 목사도 저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가슴이 찡한데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가? 그렇다. 주의 종에게 성도들이 무엇을 대접한다 한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저 아름다운 모습과 어찌 비교하겠는가? 구한말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은둔의 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 당시로서는 어리석고 헛된 일 같아 보였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선교국가가 되어 있지 않은가!

총회장 목사님이 세계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생명의 떡을 던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것, 그것 또한 먼 훗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소사교구는 소사 교구에서 남구B교구는 신기시장에서, 또 매주일 오후 동안역에서 전도하는 성도들을 보며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인천교회의 희망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을 향해 복음의 떡을 던지자. 우리의 전도가 지금은 비록 어려서 보이고 헛된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5:8-10).

이하역 목사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생각해봅시다::

일요일 같은 마음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프리스턴 대학교의 신학과 학생입니다. 오늘은 1970년 12월 14일. 당신은 지금 빠른 걸음으로 사회학과에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사회학과 건물에서 짧은 발표를 녹음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때 어디선가 퐁퐁퐁,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어떤 남자가 사회학과 건물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약속 시간은 임박했고, 연락을 취할 핸드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칠 건가요?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성경구절을 토대로 실제 1970년에 47명의 신학과 학생들에게 했던 실험입니다. 여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크게 다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주었지요(누가복음 10장 30-34절). 이 때 남을 돕고 안 돕고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

답을 실험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조건은 여유였다고 합니다. 실험 중에 몇 명에겐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조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서둘러 가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엔 너무 일찍 와서 시간이 넉넉하다고 얘기했는데, 급한 사람보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6배나 많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신앙심에 따라 실험도 해봤지만 이것들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을 도와주느냐 마느냐의 결정적 요인은 오직 '마음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였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못 본 척 하는 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라 단지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쁘게 살다 보면 조급함이라는 놈에게 선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지요. 반대로 선한 마음을 되찾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에 여유를 되찾으면 되지

요. 바쁘게 살다가도 일요일만큼은 쉬는 것처럼 24시간 중 1/7인 3시간만큼은 쉬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남을 돌아보고, 머리를 잠시 비우고, 하루를 반성하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는 겁니다. 세상눈에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잘 될 거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은 도리어 부유해지고, 과도하게 아끼고 아꼈수록 가난하게 된다는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처럼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에게 내 시간을 베풀고 돕고 쓸수록 도리어 시간은 많아지고, 베푸는 시간을 과도하게 아끼고 아꼈수록 시간이 더욱 더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일요일 같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루하루 시간이 많아지고,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선한 마음도 깨어날 거예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1989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구소련에 속해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무려 5만 5천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그 때 9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스잔나 로시안이라는 여성과 그의 네 살 된 딸 가아니도 갑자기 무너져 내린 집속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구조의 손길만을 애달게 기다리고 있었습니.

어 주위에 널려있는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자신의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딸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이 울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을 차례로 하나씩 베어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녀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대가 그들을 구출해냈을 때, 그녀의 손가락 열 개가 모두 피범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가아니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딸에게 어머니의 피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

며 죽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5:8-10).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영원한 안식처(安息處)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이 앓은 뱀이, 장님, 문둥이를 고쳤을 때, 죽은 자를 살렸을 때, 파도를 잔잔케 하며 물위를 걸었을 때, 오병이여로 5천명을 먹였을 때, 그가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혼돈을 일으킨 것은 '구원의 내용과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들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로마제국을 물리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후, 왕으로 앉아 시온의 영광을 빛내리라. 그때에는 모두 한자리씩 차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청을 넣기도 하고, 베드로는 선생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가 호되게 꾸중을 듣기도 한다. 만일 예수가 죽으면 이스라엘과 자기들이 어찌될까 염려해서다. 심지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들은 우문(愚問)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다가 '너희들 알바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구원', '왕', '나라' 등의 낱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예수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땅을 너희가 살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 오겠다"(요14:2-3).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0).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요17:14). 이상의 말씀은 성도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천국시민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부부 갈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다. 왜 그런 것일까? 이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다보니 그렇고, 더욱이 양가의 만남이 중요시되다 보니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의 다양한 것들을 해결하고 조율해야 부부로서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 '동의수세보원'을 쓴 이제마의 사상의학에서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체질을 나누어 각 체질별 신체적 특징과 심리적인 성향과 질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태양인은 직시하는 눈빛을 가졌으며,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다. 머리가 좋은 경우가 많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쉽다. 태음인은 체력이 좋으며 눈빛이 감차지

않고, 체력이 큰 편이고 사교성이 좋고 성격이 무난하다. 상호간의 조화를 중시한다. 소양인은 어깨가 넓고 허리가 작으며 눈빛이 조금은 공격적인가 할 정도로 센 편이고, 코와 귀의 모양새가 분명하고 또렷하다. 시작은 빠르고 융통성이 있으나 융투사미적으로 마무리가 약한 경우가 많다. 빨리빨리를 중요시한다. 소음인은 어깨가 작고 허리가 크며, 눈빛이 생각을 하고 있어 보인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몸이 안 좋아지면 소화기능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 부부는 대부분 체질이 다르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싶은 욕구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 태양인과 소양인은 자기주장을 하고 표출하려는 성향이

많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높고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우가 많다. 서로의 체질이 다르고 대화패턴이 다르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보면 부부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알고 존중하고 경청한다면, 상대가 나와 무엇이 다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부부간의 대화의 회복되고, 부부간의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귀를 막고 마음을 담은 채로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나의 생각만을 내세운다면 그 어느 누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청춘 발을 자국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청춘 밟고 기뻐하는 자처럼
천박한 기편을 쓴 위선자는 없다

타인으로 나를 청천하게 하고
네 인으로는 밑며
외인으로 나를 청천하게 하고
네 인술로는 밑되니라
(잠언 27장 2절)

